"결식학생 한명도 없도록"

광주교육청 후원 재단 설립…매년 25억 기금 조성

굶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재단을 설립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결식학생 제로(Zero)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이사장 고제철)을 설립하고 광주시 정보교육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관련 인터뷰 20면〉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이승연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단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재단은 매년 총 25억원의 기금을 조성, 2억5천만원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두고 22억5천만원으로 약 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광주시내 결식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게된다. 이를 위해 매년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10억원씩, 송원문화재단이 2억원 등을 출연한다. 10년간 모이게 될 기본재산 25억원은 결식학생 지원사업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학생을 제외한 5천여명의 학생들이 중식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저소득층 자녀 2만7천407명 중 시교육청이 중식을 지원한 학생은 2만3천212명(연간 예산 100억3천여만원)이며, 이들을 제외한 약 4천100여명이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재단은 이들 4천100여명에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연간 5천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된다.

초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고제철 이사장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육청의 필수 지원 대상자인 1순위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정해진다"며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결식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이번에 조성된 후원금을 기반으로 4월부터는 학부모, 기업인, 독지가, 일반시민에 대한 모금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결식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이 2일 광주시정보교육원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고제철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이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이승연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조국현 1등 광주 범시민위원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 첫 국민참여재판 21일 광주서 열린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여·2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1호 법정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신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오는 7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8월25일 만료되며, 재판부는 미리 작성된 6천명의 배심원 후보자 예정 명부를 토대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한 뒤 선정기일 통지·질문표 송부·배심원 선정기일 진행 등의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원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생후 18개월 된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순천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됨에 따라 이번 재판은 지원에서 본원으로 이송한 최초 사례다.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제3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에 배당하고 다음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지인 허모(47)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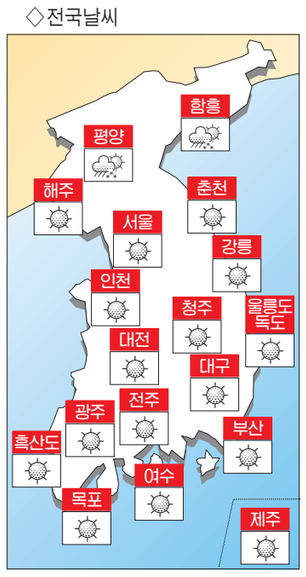
매서운 봄바람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4월 3일 (음 2월 27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5~16℃
목 포	맑음	6~13℃
여 수	맑음	7~15℃
완 도	맑음	5~15℃
구 례	맑음	2~17℃
해 남	맑음	3~15℃
장 흥	맑음	3~16℃
고 흥	맑음	3~16℃
순 천	맑음	2~17℃
영 광	맑음	3~13℃
진 도	맑음	4~14℃
전 주	맑음	4~16℃
남 원	맑음	2~16℃
흑산도	맑음	6~1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12:20 --:-- 썰물 05:19 17:54
여 수 밀물 07:30 19:35 썰물 00:57 13:35

▲해뜸 06:17 ▲해짐 18:55 ▲달뜸 04:25 ▲달짐 15: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 씨						
최저/최고	4/18	6/21	7/20	9/20	7/20	8/17

"지각생은 시 한편 씩 외우세요"

광주 무등중 정서 함양 이색 벌칙 '화제'

"지각생에게 시를 외우게 하는 선생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광주 무등중 2학년 교사가 지각생들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하고 있어 화제다. 이같은 사실은 이 학교 학부모 김은영씨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제 중2가 돼 제법 남자다워진 아들이 다가와 시를 읊어준다고 합니다. '웬일이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흐뭇합니다. 제 앞에 서서 시를 읊는 아이, 그리고 아름다운 시구가 저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2학년 1반에선 지각생에게 체벌이나 야단 같은 것들 대신, 시를 외우게 한다는군요."

김씨는 "선생님의 재치있고 빛나는 수고 덕에 나중에 아이와 제가 떠올리게될 아들의 중2 시절은 더욱 여유롭고 따스할 것"이라며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는 것, 더 여유로워지는 것은 항상 그렇듯 누군가의 작은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암송을 시킨 무등중 진선주 교사는 "저 외에 다른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매를 드는 대신 시를 외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를 외웠는지 검사하면서 아침에 왜 지각을 했는지, 시에 대한 감상은 어떤 지 등에 대해 학생과 대화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심각

광주·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털물참새피 등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로 인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퇴치·제거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 등 10종의 서식실태 등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서식 지점과 밀도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원에 따르면 황소개구리는 나주시 풍림재와 신안군 하의도에서 각각 252, 211마리가 목격됐으며, 함평군에는 붉은귀거북, 해남군은 털물참새피 등이 발견되는 등 광주·전남 8개 지역에서 수백종의 교란 동식물이 발견됐다.

특히 이 동물의 위 속을 해부해 섭취한 생물을 조사해본 결과 새우, 쏘가리, 밀어, 메기 등 다양한 생물이 발견돼 수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주시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털물참새피는 멸종위기 2급 종인 가시연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한 제거 작업이 요구됐다.

이들 외래 식물들은 생태계가 손상된 장소를 중심으로 토착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해가고 있어 지속적인 제거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없애려면

나무 947그루 심어야

자신이 일상생활 등을 통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_2)를 없애려면 947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상쇄표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평균 2.63t의 CO_2를 발생시켰는데 이를 나무심기를 통해 상쇄하기 위해서는 약 3천㎡ 면적에 어린 소나무 947그루를 심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승용차를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면 870그루,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면 312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정용 에어컨 설정온도를 2도만 올려도 35그루, 냉장고를 에너지효율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꾸면 25그루, 일반형 컴퓨터 모니터를 절전형으로 바꾸면 36그루,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면 9그루의 나무심기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1회 열량 200㎉ 이하 어린이 식품 인증 부여

1회 섭취량 열량이 200㎉ 이하인 어린이 식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품질인증제도가 추진된다.

식약청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은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 섭취량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1회 섭취량의 열량이 200㎉를 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당과 지방 함량이 높아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동원 소시지서 또 이물질 검출

참치와 햄 제품에서 잇달아 칼날 등이 발견돼 곤욕을 치른 동원 F&B가 지난 3월 생산한 소시지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사는 허모(32)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의 한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동원 F&B 비엔나 소시지에서 머리카락과 유사한 이물질이 발견됐다.

허씨는 "반찬을 만들려고 개봉한 소시지에서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뻣뻣한 검은 털이 나와 물건을 구입한 마트에 신고한 뒤 환불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마트측이 자체 상품과학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검은색 이물질은 돼지털로 밝혀졌으며 허씨와 동원 F&B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동원 F&B측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깊이 박힌 돼지털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문제 상품과 같은 시기에 제조된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모두 자동폐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